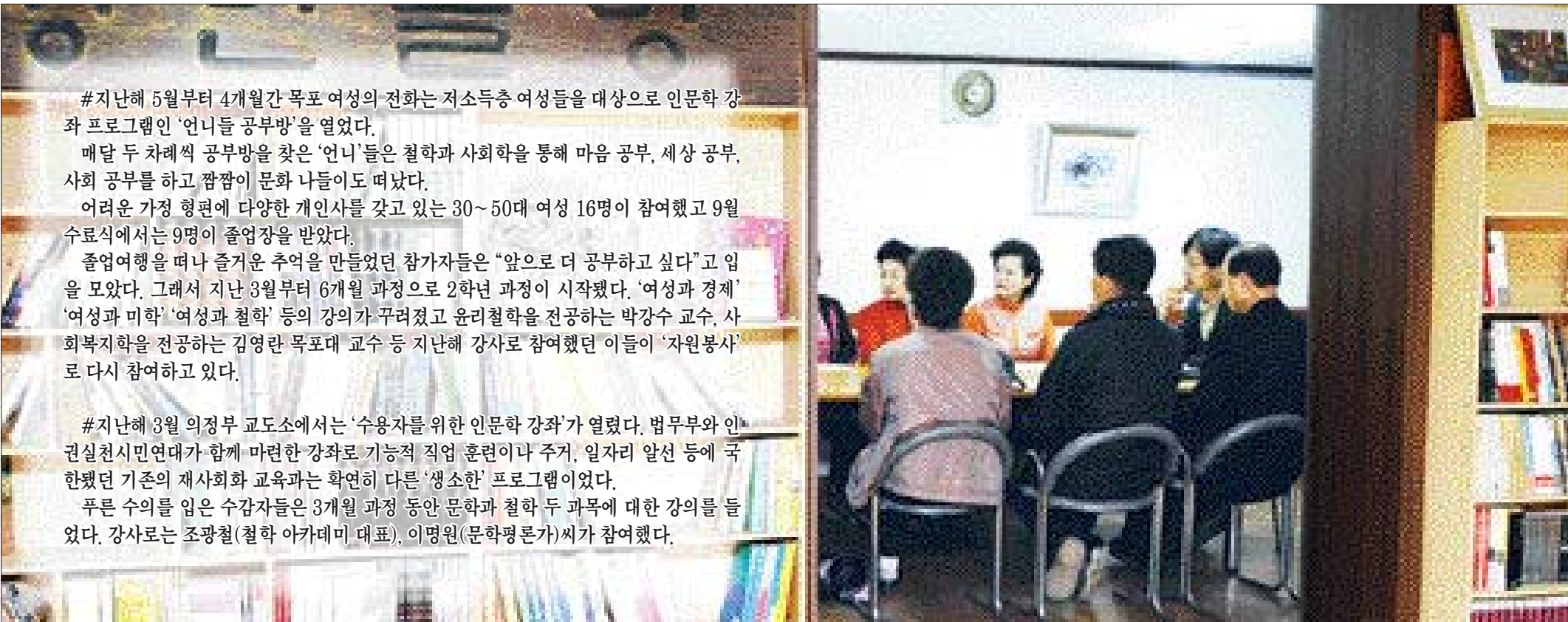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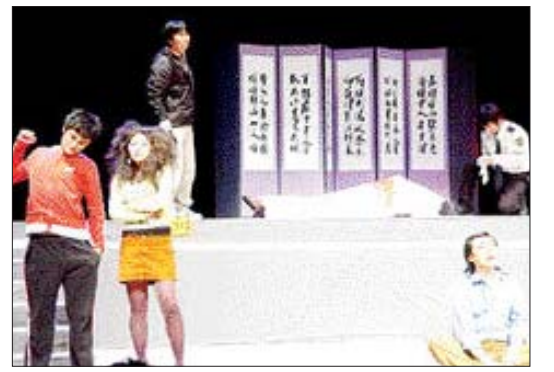
<12> 문화 나눔으로 뿌리 내린 '인문학 강좌'



지난 19일 청년글방에서 열린 '노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서 수강생들이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박해웅 연구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 '사랑 티켓' 사업 시작



4월에는 광주연극제 참가작 6편을 사랑티켓으로 관람할 수 있다.

소외계층 집중 지원 방식으로

'마술가게' 등 4월 대상작 선정

올해부터 소외 계층 집중 지원으로 바뀐 '사랑 티켓'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광주예총은 최근 작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사랑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작품(4월분)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광주국악협회가 주최하는 '남도의 가무악'(24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주최하는 '몽골민속관현악단 초청 공연'(17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연극제(9~1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마술가게'(15~30일 씨디아트홀) 등 4건이다.

사랑티켓은 아동(3~8세), 청소년(9세~2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회원'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군인, 실직자,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회원'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사랑회원의 경우 회당 5천원(전시 사랑티켓 1천원)이 지원되며 나눔 회원은 공연·전시 관람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공연·전시 각각 10회까지 관람 가능하다.

티켓 구매는 인터넷(www.sati.or.kr)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 인증을 받고 예약하면 된다.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된 사랑 티켓은 지금까지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문화·사회·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대상이 한정됐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시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세상 공부, 삶의 다양한 현장과 접목

최근 들어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저소득층, 노숙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재소자 등 소외 계층까지 아우르는 '인문학 강좌'가 문화 나눔의 한 부분으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문학을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다.

2~3년전부터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는 미국의 사회 비평가 알 쇼리스가 '가난한 이들(사회적 약자)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을 주창하며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해 개설한 '클레멘트 코스'를 그 출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민 인문학 강좌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모두 26개 사업을 선정, 각 지역에서 '체계적인' 인문학 강의가 진행 중이다.

강의는 노인(웰다잉, 아름다운 마장표), 노숙인(정신적 자립을 위한 성프란시스 인문대학), 다문화 가정(아름다운 차이, 아름다운 행복) 등을 대상으로 열리며 군부대(글로벌 시대의 인문학 강좌, 동양 고전 아카데미), 교도소(재소자들의 정신 건강과 자신감 증진을 위한 강좌)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충남대, 고려대, 경희대 등 각 대학과 (사)철학 아카데미,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역사문제연구소 등 사회단체들이 맡고 있다.

저소득계층·성매매 피해여성·재소자 등 소외 계층 아울러

대학·사회단체 앞장... 영화 감상·현장답사 등 문화체험 결합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전남대가 사업을 맡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이론 공부와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을 결합시켜 참가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남대는 지난 2월부터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다. 철학연구교육센터와 역사문화연구소가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강좌는 모두 6개로 3개월~7개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남대 정문 청년글방에서 열리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는 50대 후반~60대 어르신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철학연구교육센터 박해웅(서양철학)연구 교수가 '노년의 생활'을 주제로 2개월간 진행하는 강좌는 인문학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잃은 노인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사회 활동의 의미를 높여주는 게 목표다.

'함께하는 삶을 위한 인문학'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광주북구희망자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첫 수업을 가진 참가자들은 이론 공부와 함께 5월부터는 시낭송,

연극 관람, 영화 감상, 미술관 방문,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인문적 경험을 하게 된다.

'다문화 인문 강좌'는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 강좌', '이주민과 함께 하는 인문 강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역사·문화 강좌'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새날학교, 무지개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름방학 때는 '청소년을 위한 논리 강좌'도 열릴 예정이다.

목포대는 목포 여성의 전화, 무안군 농민회와 함께 목포 지역 저소득 여성과 무안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훈, 김신태 교수 등 인문대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문화와 역사, 글쓰기와 관련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강좌는 1년 과정으로 '사고와 표현'(전반기), '남도의 역사와 문화'(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17회 동안 진행되는 '사고와 표현'은 글쓰기와 말하기 등에 대해 배우는 강좌로 '생각하는 방법', '논리 글쓰기' 등의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

'남도의 역사와 문화'는 남도 지역의 역사와 함께 정철·윤선도·김영랑·김지하·김남주 등 지역 문인들의 작품 세계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답사 등도 열릴 계획이다.

한편 전남대는 오는 4월부터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인문학 강좌도 준비 중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건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공부방에 참여한 언니들은 무엇보다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철학을 배우고, 사회학을 배우냐는 편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삶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런 편견은 의미가 없죠."

'언니들 공부방'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 여성의 전화 최유란씨는 "무엇보다 공부에 참여한 언니들이 자신감,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게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Advertisement for '장수운동침대' (Longevity Exercise Bed) featuring a woman sitting on a bed and various furniture items.

Advertisement for '모디쉬 갤러리' (Modish Gallery) featuring a dining table set and other furniture, with a price tag of ₩690,000.